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감사는 무에서부터(몸:20~22절)

가을학기 종강 및 야유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담임신부 토마스 이)가 운영하는 '은빛대학'이 가을학기를 종강하고 야유회를 다녀왔다.

은빛대학은 지난 7월 약 7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학기 종강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타 연주 등 은빛대학 수강생들이 학기 동안 배우고 익힌 특기들을 선보였다. 은빛대학은 지난 가을학기에 스마트폰, 라인댄스, 영어, 기타, 노래/복음송, 연필 스케치, 컴퓨터, 노래 부르기, 뜨개질, 우쿨렐레 등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했다. 은빛대학 학생들은 종강식 1주일 뒤인 14일에는 40여 명의 수강생들이 샌디에이고 줄리안공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토마스 이 학장은 "은빛대학 가을학기 강좌들은 모두 알차게 운영돼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내년 3월에 더 알찬 강좌를 개설해 봄학기를 시작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유스하이어 콜링 컨퍼런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를 개최한다.

미주 한인 차세대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열리는 이 행사는 12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포모나에 있는 Sheraton Fairplex Hotel & Conference Center(601 W McKinley Ave, Pomona, CA 91768)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찬양과 말씀, 선택 강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생의 행로를 제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비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전문 상담가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석 대상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며 행사는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할 경우 300달러,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330달러,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는 360달러다.

▶ 문의: (818) 314-6643, (213) 247-7086
youthhighercalling.org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을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땀 흘린 결실을 거두게 하신 일년을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절날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렸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면 농작물은 결실을 맺을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하는 일에 성공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통한 결실을 눈앞에 볼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서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내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출발점에 서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감사는 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읍을 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재가를 받아 읍의 소유물을 쳤는데, 들의 나귀로부터 집안의 아들딸까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쳤습니다. 그럼에도 읍



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1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로 돌아가는 읍의 모습을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수고하여 얻었던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7남 3녀나 되는 아이들이 모조리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읍은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인 무로 가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자신은 붉은 몸이었습니니다. 아무 것도 걸치고 나온 것도 쥐고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이제까지 인생에서 얻어진 모든 것이 읍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정 들여 키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예 이 아이들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조차도 줄 곳이 없는 불쌍한 자신이 있을 것을 읍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식이 그러할진대 나머지 재물과 재산들은 별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무에서 보니 이제까지 이 만큼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 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지금의 이 불행한 모습으로 오늘 당장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린다 해도 그간 누렸던 행복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핏덩어리로 나왔사온즉 또한 그런 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붉은 몸뚱이로 나온 저에게 이 모든 행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다시 거두어 신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그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 자체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마음에 감사의 감격이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무에다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하고 새로운 하루 하루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김승도 목사-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